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6/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관세음보살 42수 자언 필사명상	동은	조계종출판사
2	한글 원각경(함허해) 한문수록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3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4	무문관	무문혜개/김태완	침묵의향기
5	선관책진(선의 관문을 뚫다)	운서주굉	호미
6	금강반야바라밀경	혜조	운주사
7	묘법연화경-한글독송본	광우,정목	김영사
8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불광출판사
9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최종걸	다우
10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스님 회고록	김영사
2	바람결처럼	대행큰스님 법문	한마음출판사
3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뽈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4	간화선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6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8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10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강설	붓다스쿨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조은 지음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호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방대한 원자료…성전 성립 고찰
경·율·논·역사서 치밀하게 분석
호진 스님 15년 연구 공력 응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처님 입적 후 500여 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제1차 결집을 한 인도 라즈기리의 칠엽굴.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전(經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흔히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모여 경전을 결집(結集)했다고 설명한다. 1차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2차 결집에서는 계율 문제가 논의되며, 3차 결집에서는 교단의 정통성이 재정비되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 어떤 자료와 전승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후대의 해석과 재구성은 얼마나 개입돼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초에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리되고 결집됐는지, 그리고 현재 전하는 경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는 호진 스님(전 동국대 교수)이 통설처럼 받아들여져 온 결집과 경·율·론 삼장(三藏) 성립의 과정을 면밀하게 다시 살핀 책이다. 여러 부파의 율장, 경장, 논서는 물론 역사서, 여행기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검토해 문헌마다 다르게 전하는 결집 관련 기록을 꼼꼼히 대조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의 정설처럼 이해해 온 결집 서사가 실제로는 복잡한 차이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더 나아가 2차 결집의 경우 동기와 장소, 참석자, 과정이 자료와 설명마다 일정하지 않아 ‘결집’이라는 이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호진 스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료 자체’를 중시한다. 원자료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확인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해 과제를 던진다. 따라서 이 책은 결집의 역사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불교 문헌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차 결집부터 3차 결집까지의 자료를 가능한 모두 파악해 정리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결집의 여러 중심 문제들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 검토해 스님의 생각과 해석을 덧붙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관련 논문과 논저들에 기술된 내용과 스님의 연구 결과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새롭게 천착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한다.

호진 스님은 “현대 불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전개함에 있어 불교 문헌의 성립, 특히 그 가운데서도 초기 불전의 성립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 불교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새삼 환기되거나 고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랜 세월 이 주제에 천착해 온 스님의 각별한 애정과 절절한 마음은 후기에도 담겨 있다. 1982년부터 대학에서 경전 성립사를 가르치며 초기불교 성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스님은 1991년부터 관련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스님은 “때로는 이 작업이 무모하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회의와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을 달랠 길이 없어 한없이 헤매는 마음이기도 했다”고 토로하며 “그러나 1600여 년간의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전 성립에 대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 책은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공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자, 부처님의 음성이 ‘삼장’이라는 성전으로 전승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복원해 낸 기록이다. 평생을 교학 연구와 집필에 매진해 온 스님이 집념이 책장마다 묵직하게 배어 있다.



호진 스님은 1964년 직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철학과에서 초기불교를 전공,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에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강의했다. 2000년 동국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후로는 경주 기림사 동암에서 연구와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인도불적답사기〉, 〈성지에서 쓴 편지〉(공저)가 있고 역서로 〈인도불교사 1-2〉, 〈아쇼까왕 비문〉(공역) 등이 있다.

불교는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

운주사

2만4000원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불교 신자와 무슬림 간의 폭력 사태 당시 일부 스님과 불교단체들은 군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은 미얀마 스님들이 무슬림을 추방 집회에 참가한 모습. 사진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불교와 권력의 관계 추적
전쟁·국가폭력·성차별까지
불교 내부 구조 비판적 성찰

불교를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자비와 평화, 비폭력의 가르침을 연상한다. 살생을 금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온 종교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와 폭력〉은 ‘평화로운 불교’라는 이미지 뒤편에 존재해 온 폭력의 역사와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불교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교가 역사와 사회, 정치권력 속에서 어떻게 폭력과 결합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교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다.

책은 6개의 장과 맺음말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불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후반부는 폭력의 피해자로서 불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다룬다.

1장에서는 살생과 전쟁, 분쟁에 대한 불교의 다양한 태도를 살핀다. 초기불교와 상좌부, 대승, 금강승 전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생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는지, 폭력이 정당화됐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종교적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불교가 보여준 모순적 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2장에서는 국가 폭력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한다. 저자는 태국 군주제를 사례로 들며 승려들이 독재 체제와 폭력적 통치를 어떻게 지지하고 정당화했는지를 살핀다. 3장은 불교 내부의 성차별 문제를 다룬다. 태국에서 여성 수계가 오랜 기간 금지돼 온 사례를 중심으로 교리적 논쟁이 어떻게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불교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4장에서는 군종 문제를 통해 종교와 군대의 관계를 분석하고, 폭력이 종교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태국 남부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불자와 무슬림 공동체가 트라우마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한다. 6장은 종교적 모독이 공동체 정체성과 권위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분석하며,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성찰하게 만든다.

저자는 문헌 연구에 머물지 않고 태국 남부 분쟁 지역과 종교 갈등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살아 있는 사례들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종교가 추상적 교리의 차원을 넘어 실제 인간의 고통과 정치적 폭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는 “불교는 원래 평화롭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와 지역, 권력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구성돼 온 ‘불교 체계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를 이상화하거나 신성화하기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11월 4일/11월 11일/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서역기행의 시작,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맥적산석굴-수렴동마애불-란저우-돈황(막고굴, 명사산)-투루판(베제클리크석굴, 고창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서안-인천
▶동참금 : 문의
★ 국내선 2회+고속열차 1회로 편안한 일정 ★



황금빛 불탑의 향연,
미얀마 양곤+짜익티오 4박5일
▶일 정 : 인천-양곤-짜익티오-바고-양곤-인천
▶동참금 : 문의 ★금, 일 출발가능★
미얀마 완전일주 6박7일
▶일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